

# 연구대상·방법론의 편향성 개선돼야

## 책을 통해 본 민간신앙연구 20년의 반성과 과제

金泰坤

경희대 교수·민속학

民俗學會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민간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신앙분야의 연구성과는 논문과 단행본으로 발표되었는데, 논문은 대체로 어느 특정 분야를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으로 다루었고; 또 그런 논문들이 수정 보완되면서 단행본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어 출판될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연구가 완결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려고 한다.

먼저 민간신앙 분야의 연구성과를 회고해 보면서 반성한 다음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단행본 연구성과 46권중 40권이 巫俗

민간신앙을 분야별로 나누면 대체로 季節祭·家神신앙·洞神신앙·巫俗·讀經신앙·自然物신앙·英雄신앙·動物신앙·邪鬼신앙·風水신앙·占卜·豫兆·禁忌·呪符·呪術·民間醫療 등으로 갈라지을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에 민속학계에서 이루어진 민간신앙의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보면 별표와 같다.

이밖의 논문집으로 「韓國民俗學論巧」(任東權, 선명문화사, 1971), 「韓國民俗研究」(朴桂弘, 형설출판사, 1973), 「韓國民俗學論考」(李杜鉉, 학연사, 1984), 「韓國傳統文化的 精神分析」(金光日, 시인사, 1984), 「韓國民俗論巧」(張壽根, 계몽사, 1986)에 민간신앙 관계 논문이 각각 10편·10편·11편·9편·7편이 수록되고, 「全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69~) 전13권에도 각각 민간신앙편이 있다.

지금까지 1960년대에서 1980년대말까지 주로 민속학회가 창립되어 회원들이 활동한 지난 20년 동안의 민간신앙분야 연구성과를 돌아켜보았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학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속에서도 민간신앙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문적 반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민간신앙분야의 연구가 지극히 편향적이다. 앞에서 민간신앙을 대충 16갈래로 나누

지난 20년간 우리 민속학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연구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그 연구대상이 무속 분야에

편중돼 왔다는 점, 그리고 자료와

이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진 방법론상의

문제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중에서 무속이 40권, 동신신앙이 3권, 가신신앙 관련 1권, 풍수신앙 관련 1권, 민간신앙론 1권으로, 지금까지 단행본으로 출간된 민간신앙분야의 46권 중에서 무속이 40권이냐 된다는 것은 민간신앙 분야의 연구가 무속으로 집중된 편중성을 보여준다. 민간신앙 분야의 연구가 이렇게 무속으로 집중되는 반면에, 독경과 점복을 위시한 나머지 10개 분야의 연구성과는 단 한권도 없다.

둘째, 민간신앙의 연구경향이 역사와 職能者 위주로 연구되어 일반 신도 쪽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미약한 편이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내향성은 土俗誌의 계열로, 외향성은 외국(특히 서양)이론 추종 계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토속지적 계열은 민간신앙 자료를 현장에서 조사하여 여기에 해설을 붙이면서 분류하고 역사적 유래를 밝히는 것을 주로 하고, 후자의 외향성은 아예 서양의 이론틀에 민간신앙 자료를 갖다 맞추어 해석하는 계열이다.

이 양자는 각기 모순점을 안고 있어서, 전자의 토속지적 계열은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이론적 기반 위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학문의 국제적 방향감각에 어두울 때 어차피 '사랑방이야기'로 오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무턱대고 서양이론에만 추종한 나머지 한국의 현실과 먼 이론을 위한 이론을 떠나가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인 내향성과 외향성은 양자가 절충되어 상호 보완적인 합치점을 찾을 때 바람직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중에도 극소하나마 서양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지난 20년간의 민간신앙 연구성과를 되돌아볼 때, 적지 않은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대부분 巫俗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돼 왔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사진은 굿판의 장면.

면서 국내 현실로부터 자체적 원리를 찾는 데에 주력하는 계열도 있다. 연구방법에서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민간신앙이 종교적 현상인데도 그동안의 연구는 종교학적 기반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민속학 쪽에만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 자료와 이론의 조화 요망돼

민간신앙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영역이 확대되어 민간신앙의 전분야가 고루 연구되어야 하겠다. 그러자면 연구인력이 보다 증원되어야 하고, 연구인력이 증원되자면 연구자들의 관심이 민간신앙 쪽으로 보다 많이 가야 되겠고, 장기적 대책으로는 대학에 민속학과나 종교학과가 증설되어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길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의 종교학과에서 민간신앙분야 연구인력이 전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민간신앙분야의 民俗誌 작성이 시급하다. 민간신앙 자료가 시시각각으로 인멸 변화되고 있다. 인멸 변화되기 전에 자료의 포착 보존이 필요하고, 이 분야의 학문발전의 필요에서도 이 분야의 민속지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이론적 기반이 전제된 기틀 위에서 이루어진 민속지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내향성의 토속지적 계열은 바깥의 사정을 알기 위해 밖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연구성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고, 외향성의 서양이론 추종 계열은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을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료현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의 현실로부터 문제를 보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론은 언제나 자료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고, 문화현상은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로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넷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민간신앙의 직능자 위주로 연구되어온 느낌을 주는데, 앞으로는 신도 쪽에도 관심을 확대시켜 민간신앙의 사회적 수용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학·사회민속학·종교사회학·종교심리학 쪽의 관심확대와 지원이 요청된다.

다섯째, 민간신앙분야의 연구성과가 고루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 전반으로 확산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 연구성과가 축적된 분야라도 인접지역과의 비교연구로 시야를 넓혀 한국민간신앙의 계통과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자면 민간신앙 연구자는 민족학·종교인류학 쪽의 관심 확대와 지원이 요청되는데, 그 측은 언제나 한국의 민간신앙에 두어야 한다.

\*별표\*

민간신앙 분야 단행본 연구성과

분야	책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민간신앙론	韓國民間信仰研究	김태곤	집문당	1983
巫俗	韓國의 神話	장주근	성문각	1961
	京畿道地域巫俗	"	문화재관리국	1966
	韓國의 鄉土信仰	"	을유문화사	1975
	南國의 神話	진성기	아림출판사	1965
	南國의 巫歌	"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南國의 巫俗敍事詩	"	정음사	1980
	關北地方巫歌	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關西地方巫歌	"	"	1966
	黃泉巫歌研究	김태곤	창우사	1966
	서울地域巫俗	"	문화재관리국	1971
	韓國巫歌集 I	"	원광대민속학연구	1971
	韓國巫歌集 II	"	"	1976
	韓國巫歌集 III	"	"	1978
	韓國巫歌集 IV	"	집문당	1979
	韓國巫俗誌	"	경희대민속학연구소	1979
	韓國巫俗研究	"	"	1981
	韓國巫俗圖錄	"	"	1982
	韓國의 巫俗神話	"	"	1985
	韓國巫神圖	"	열화당	1989
	韓國固有信仰研究	장병길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	1970
	韓國巫俗의 歷史와 構造	유동식	연세대출판부	1975
	韓國巫俗의 研究	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韓國巫俗論	"	형설출판사	1981
	韓國의 巫堂	"	열화당	1981
	巫俗의 世界	"	정음사	1987
	東海岸巫歌	최정여·서대석	형설출판사	1974
	濟州島神話	현용준	서문당	1976
濟州島巫俗事典	"	신구문화사	1980	
濟州島巫俗研究	"	집문당	1986	
忠清北道巫歌	김영진	형설출판사	1976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김열규	일조각	1977	
韓國巫歌研究	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韓國巫俗의 綜合的 考察	고대민족문화연구소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韓國의 巫	조홍윤	정음사	1983	
황해도 내림굿	김수남	열화당	1983	
巫俗劇과 不條理劇	키스터 다니엘	서강대출판부	1986	
韓國巫俗思想研究	김인회	집문당	1987	
仁川地域巫俗 I	이선주	동아사	1987	
仁川地域巫俗 II	"	미문출판사	1988	
韓國人の 國과 무당	황루시	문음사	1988	
洞神신앙	多島海의 堂祭	최덕원	학문사	1983
	韓國古代宗教思想	이은봉	집문당	1984
	韓國自然信仰研究	김영진	청주대인문과학연구소	1985
家神신앙	韓國의 祖上崇拜	최길성	예전사	1986
風水신앙	韓國의 風水思想	최창조	민음사	1984

작품구상

# 亂世를 사는 풍류협객의恨

역사소설 「歌客」

朴起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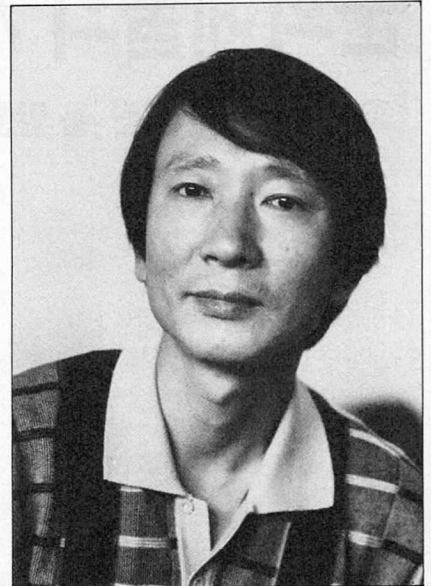
소설가·서울예전 교수

조선 광해군 때의 풍류협객

徐羊甲의 일대기를 통해, 亂世를 사는 서자출신들의

억눌린恨과

저항정신을 그리려 한다.



학교 일에 매달려 사느라고 오래 소설 쓰는 일을 잊고 있었다. 소설창작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소설을 쓴다는 것이 거의 가망없는 노릇이나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가르치는 일과 쓰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전에는 어떻게 소설을 썼더라? 그런 부질없는 질문에 시달리면서 예닐곱 해를 그냥 떠밀려왔다.

작년 연초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소설로 쓰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지난 봄부터 모 지방 일간지에 80회 남짓 연재를 하다가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중단상태에 있는 소설이다. 나로서는 줄곧 현대물만 써오다가 처음 손을 댄 역사물인 셈인데, 그 서두 부분이 된 5백장쯤을 쓰면서 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았다.

사실 나는 이 소설 「歌客」을 쓰기 위해 너덧해 전부터 꽤 부지런히 자료를 모아 왔었는데, 그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개 소설구성의 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가지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조선 광해조 때의 서자 출신 협객 徐羊甲의 일대기가 바로 내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소설 「歌客」의 주된 내용이다. 전체 분량은 원고지 6천장쯤으로 계산해두었다. 주인공과 함께 어울렸던, 같은 서자 출신의 여섯 동무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져야 한다. 또 어지러운 세상, 게다가 신분상의 문제로 과거길까지 막힌 열혈의분 협객들의 그 억눌린 한과 저항정신을 소설의 바다에 강한 배음으로 깔아두어야 한다.

무대는 서울, 해주, 문경새재, 여주강 등이 될 것이다. 당대의 지리풍속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늘 책상머리에 붙여두고 있다.

작은 마을 이름 하나, 개울 모양 하나까지도 노트해두고 있다.

亂世, 作党, 逆謀 등 전3부작으로 엮을 예정인데, 이야기의 전개과정은 「홍길동전」과 유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주인공 서양갑은 홍길동의 또다른 이름임에 다름아니다.

유교사회에서 그 사회의 가치체계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쩔수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도교적 정신세계도 아울러 천착해보려고 한다. 축지법이나 둔갑술이란 것도 억눌림에 대한 정신적 저항이 상상력에 의해 분출되는 불가해한 현상 중의 하나가 아닐는지?

민중적 언어가 오늘의 역사소설 속에서는 거의 死語가 되고 말았다. 지난 시절의 인물들에게는 그 시절에 합당한 언어적 표현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판소리 대본에 나오는 걸쭉한 언어들, 민중극의 언어들(남사당패 사설이나 탈춤에서 쏟아지는 직감적 육두문자들을) 열심히 모아두었는데, 그것들을 이 소설에서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잊혀져가는 고유어들을 가능한 한 많이 地文이나 대화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현실이 차고 암담하게 느껴질수록 더욱 자주 옛일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옛일들을 생각함으로써 현실을 잊어보려는 도피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옛일들이 오늘의 이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는 깨달음을 경험하게 하는 탓일 터이다. 서양갑, 그 풍류객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도 그런 이유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서출이며 검객이며 歌人이었던 그 풍류객의 행적을 좇는 일에 내 작은 눈을 늘 크게 열어두고자 한다.